

2026년
4월

최신 해외연구정보 동향

KOICA ODA연구·교육원

Welfare Resource Curse and Blessing? Accounting for Causal Heterogeneity in the Oil-Welfare Nexus

복지 자원: 저주인가, 축복인가? 석유-복지 연계에 대한 인과적 이질성 설명하기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탈탄소화 경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자원 의존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즉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에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석유 매장량과 복지 수준 사이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며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일한 조건에 대한 상반된 결과는 인과적 이질성(causal heterogeneity)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질적 비교 분석(QCA)을 활용하여, 41개 석유 부국 표본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건 집합 간의 관계를 구성론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이를 통해 각 복지 성과(낮은/높은)와 연관된 구성 경로가 발굴되었다.

자원의 저주가 일어나는 경로는 다음 두 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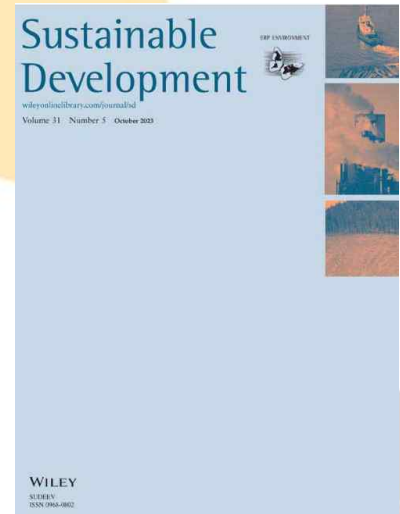
- ① 정치 엘리트 행동주의: 높은 석유 수입과 부패가 있으면서 동시에, 세금도 낮지 않고 민주주의가 결여된 경우(알제리, 앙골라, 리비아 등 8개국)이다.
- ② 경제 엘리트 행동주의: 높은 부패와 낮은 조세가 있고, 민주주의가 결여된 경우로 높은 불평등이 특징인 경우(이집트,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이다.

자원의 축복 경로 역시 두 가지이다.

- ① 재정 역량 경로: 높은 석유 수입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부패가 없고, 조세는 높고 불평등은 낮은 경우, 높은 복지 수준을 보여준다. 이 경우는 노르웨이만 해당한다.
- ② 지대 수익자(rentier) 경로: 민주주의가 없고,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높은 불평등도 있지만 관료제가 투명하고 유능한 중동 부국들(사우디, UAE, 카타르 등)의 경우, 높은 복지 수준을 보여준다.

각 경로는 서로 다른 문헌의 흐름을 뒷받침하며,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석유 의존을 당장 피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저주'를 피하고 '축복'을 활용해야 한다.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이중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부패, 조세, 민주주의, 불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기관/학술지명: Sustainable development
- 문서종류: Research Article
- 발행연월: 2026.3.
- 저 자: Pablo Garcés-Velástegui
- 주 제: Natural resources
- 키 워 드: Causal heterogeneity, Human development, Oil, Resource curse, Welfare,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 출 처: <https://doi.org/10.1002/sd.70960>

Do Public Works Programs Have Sustained Impacts? A Review of Experimental Studies from LMICs

공공사업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위중소득국의 실험 연구 검토

많은 하위중소득국(LMICs)은 빈곤층에게 일시적인 '캐시 포 워크(cash-for-work)'¹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사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왔다. 본 연구는 공공사업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단기 및 중기적 영향(impact)에 대한 실험적 증거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사업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저축이나 자영업 활동에 대한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단기적인 긍정적 효과는 중기에 이르면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정서적 웰빙과 여성의 권한 강화에 대한 개선된 증거를 발견했으나, 이는 체계적이지 않았으며 측정상 한계가 있었다. 일부 맥락에서는 공공사업 프로그램이 시장 임금을 향상시켜 참가자와 비참가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¹ **Cash for work** : 캐시 포 워크 메커니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사업 방식 중 하나이다(신홍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KIEP))



- 기관/학술지명: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 문서종류: Research Article
- 발행연월: 2026.2.
- 저 자: Aanchal Bagga et al.
- 주 제: Social protection
- 키 워 드: Public works programs,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Social protection, Employment. Experimental evidence
- 출 처: <https://doi.org/10.1093/wbro/lkae011>

Digitization in Agriculture: Exploring the Impact of Internet Connectivity and Smartphone Access on Grain Food Production: Evidence From Advanced 5G Economies

농업의 디지털화: 인터넷 연결성과 스마트폰 접근성이 곡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탐구: 5G 도입 경제의 증거

디지털화는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기술적 혁신 중 하나로 부상하여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혁신은 실시간 기상 정보, 최적의 농법, 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에 큰 혜택을 준다.

이에 본 논문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5G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5개국(캐나다, 중국, 미국, 핀란드, 필리핀)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스마트폰 보급, 경작지, 비료 투입량, 농업 노동력이 곡물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시 분위 회귀(Simultaneous Quantile Regression, SQR) 분석 기법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은 모든 사분위에서 곡물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작지 면적은 일반적으로 곡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경향은 생산량이 많은 지역일수록(높은 분위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화학 비료는 곡물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진다. 그러나 농업 노동력은 혼재된 영향을 보였으며, 곡물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그 효과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화가 농업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기술을 통해 농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선도적인 5개국은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인터넷 접근성을 확대하여 스마트폰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곡물 생산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기관/학술지명: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 문서종류: Research Article
- 발행연월: 2026.3. (Early view)
- 저 자: Nazeer Ahmed et al.
- 주 제 : Digitalization
- 키 워 드: 5G internet, Digitalization, Food production, Smartphone access, SQR method
- 출 처: <https://doi.org/10.1111/rode.70146>

Challenges and roles of grassroots community organisations in decentralised governance: a case study of Mali's Office du Niger zone

분권화된 거버넌스에서 풀뿌리 지역 사회 단체의 과제와 역할: 말리의 니제르 사무국 관할 지구 (Office du Niger) 사례 연구

말리의 지방 분권화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특히 니제르 사무국 관할 지구(Office du Niger)¹의 천연자원 관리에 대한 갈등과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되면서 중대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풀뿌리 지역사회 단체(Grassroots Community Organisations)는 상당한 제약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권화된 거버넌스 내에서 이러한 단체들이 직면한 지역 자원의 관리 과제와 역할을 반구조화 인터뷰와 직접 관찰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자원의 관리에 대한 각 단체들의 기여에 대해 40명의 지역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사회 단체들은 재정 및 인적 자원의 부족, 기술 교육의 부재, 그리고 협력을 저해하는 내부 분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원의 공평한 관리, 기본 서비스 제공, 여성과 청년의 역량 강화를 옹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경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거버넌스 환경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역량 강화와 자율성 확보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¹ **Office du Niger**: 서아프리카 최대의 관개 농업 지역이다. 이 지역은 말리 경제 기반인 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니제르 총괄 사무국(general directorate of the Office du Niger)이 실행하는 국가 주도의 토지 소유제가 소작농들의 전통적 관습과 충돌하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 외 외국 투자와 국가 쌀 생산 목표에 의한 토지와 물에 대한 경쟁이 심화하며 지역 내 갈등이 빈번하다(본문 478p.).



- 기관/학술지명: Inter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Review
- 문서종류: Research Article
- 발행연월: 2025.10. (Volume 47, Issue 4)
- 저 자: Hamadou Amadou Cissé Barry and Abhilash Babu
- 주 제: Community development
- 키 워 드: Mali, Grassroots community organisations, Decentralised governance, Local resource management, Inclusive sustainable development
- 출 처: <https://doi.org/10.3828/idpr.2025.19>